

## 공황장애 - 뇌질환인가?

양 종 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공황장애의 병인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크게 대별된다. 주로 거론되었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발달초기에 부모의 조기상실, 분리불안, 불안을 처리하는 방어기제의 미숙 등을 강조하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인지왜곡 및 “false threat alarms” 이론 등의 인지행동이론이 있다.

한편 공황장애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Locus coeruleus의 과다항진을 비롯한 교감신경계 변화, GABA-Benzodiazepine receptor complex binding의 감소, serotonergic modulation의 이상, HPA axis의 변화, brain stem carbon dioxide chemoreceptor의 과민성, amygdala를 중심으로한 fear network의 과민성 및 조건화, 유전적 요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neurochemical, neuroendocrine, neuroimaging, pharmacology 등의 발전에 힘입어 이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상호 연결되지 못한 채 펼쳐져 있거나, 심리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을 상호 배제해야 할 양분론적으로 입장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광황장애에 대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어떤 정신질환이 뇌질환인가 혹은 마음의 질환인가를 구별하기 보다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보다 자세히 탐구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재에서는 지금까지의 공황장애에 대한 다양한 병인론들을 살펴보고,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원론적 관점(monistic perspective)을 바탕으로 신경생물학적 접근(neurobiological approach)과 심리적인 접근(psychological approach)의 통합(integration)의 중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